

아가 1 장

1. 솔로몬의 아가(아름다운 노래, 혹은 노래 중의 노래)란다. 솔로몬이 부른 노래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1장에서 찾아보자.

8-11절 뿐이다. 아가서 전체를 보아도 솔로몬이 부른 부분은 적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전부 솔로몬의 말이지만 솔로몬의 아가서는 대부분이 솔람미 여인이 부른 노래다.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노래의 대상이 된 경우가 더 많다.

2.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고백(남녀상열지사)이야 흔해 빠진 것인데 솔로몬의 아가는 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거나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한 탓이다. 남녀간의 사랑에서 유발되는 질투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셨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사랑의 노래가 결국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을 예시하는 셈이다(엡 5:22-23, 사 54:5, 계 19:7-8, 21:1-2). 결혼이 자녀출산을 위한 수단이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졌던 그 옛날에 온전한 사랑을 노래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3. 처음 나오는 여자의 고백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2-7(네, 너를 당신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쉽다) 여자가 아주 적극적이다. 남자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품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평생을 죽을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왕이 한번 불러 주기를 고대하며 왕궁에서 처녀로 늙어가는 여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솔로몬의 왕궁에도 그런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왕이 불러주는 것이 그야말로 '성은'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4. 연애편지를 쓴다면 누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럴까? 또,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럴까? 원문이 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2절만이라도 연애편지 형식으로 바꾸어 보자. 그게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운 당신의 입술,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 이게 더 낫다. 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성경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가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보자. 원문상으로는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입술의 입맞춤이다. 존경이나 인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성간의 관능적인 의미다.

5. 이름이 향기롭다(3)?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럴까?

이름은 존재의 전부를 의미한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보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몸짓이었을 뿐이다. 이름을 불렀을 때에 비로소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그 이름이 쏠은 향기롭(향수)처럼 향기롭다는 것은 그 분이 귀한 존재이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황홀감과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6. 4절의 원문상 첫 단어는 '나를 이끄소서'다. 그러면 솔람미 여인이 기쁘게 이끌려 가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웬 우리?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처녀들(5) 다시 말해서 솔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기뻐하는 친구들일 것이다. 신혼여행 가는 신랑 신부를 끝까지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더라. 노래하는 사람에 따라 4절을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솔람미 여인) 나를 이끄소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끄시는 대로 가리이다(친구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솔람미 여인)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노래하는 사람의 뒤에서 코러스를 넣는 셈이다.

7. 사랑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올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여인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자신의 외모(5-7) 화려하게 치장은커녕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하다. 그렇다고 열등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겸이나 아름답단다. 게달이나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능력자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한 것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탕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가? 아니면 날마다 죽을 죄인으로 징징거리기만 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비결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8. 게달은 이스마엘의 차남이다(창 25:13). 주로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들의 장막은 암갈색 혹은 검정색 염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의 휘장은 무엇인가?

왕의 외부 행사 때 사용하는 장막을 가리킨다: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다. 혹시나 임금의 성은을 입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장면과는 전혀 다르다.

9. 아가서에는 이 여인의 아버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아마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가정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오빠들이다. 이들에게 솔람미 여인은 어떤 동생이었을까?

화를 내서 일을 시켜야 했을 정도(6) 형제간에야 원래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솔람미 여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반드시 이복형제를 뜻하는 말은 아니란다(참고 사 8:19).

10.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라도 함부로 그 앞에 가지 못했다. 술람미의 경우는 어떤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남자가 일하는 양 떼들이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찾으러 간다.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참으로 특이한 예다. 하나님은 죽자고 자기 백성을 찾아다니고 이스라엘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다닌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11. 사랑하는 자를 찾아갔는데 왜 '네 친구의 양 떼 곁'에 있으면 안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거리다가 행실이 나쁜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12. 만날 곳을 가르쳐 달라는 여인의 요구에 남자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최선의 응답을 한 썬: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주소나 특정한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에 가장 알맞은 답이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이며 혼자서 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니 염소 떼를 몰고 오라고 하는 썬이다. 목동들에게는 가장 알맞은 답이었을 것이다.

13. 여인의 고백에 이은 남자의 고백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8-11: 11절은 남자가 포함된 예루살렘의 여자들(합창단)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아가서는 칸타타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 썬이다.

14.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바로의 준마'로 비유하였지만 원어상으로는 준마가 아니라 '암말'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강한가?

아름다운 장식미: 10-11절에서 화려한 장식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여자가 긴 머리털을 지닌 것이나 목걸이를 지닌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바로의 준마(암말)라고 한 비유의 연장선이다. 멋진 말은 갈기(목에서 등으로 흘러내린 털)와 목에 두른 장식이 백미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은을 박은 금사슬을 두르게 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법이다.

16. 사랑하는 여인의 칭찬만큼 남자들에게 좋은 약은 없다. 바로의 준마같은 여인이 남자를 무엇에 비유하는가(13-14)?

물약 향주머니(향기), 고벨화 송이(향기): 한 마디로 아름답다는 말인데 남녀의 모습이 바뀐 것 아냐? 반면에 자신은 아주 평범한 여인이라고 한다(2:1). 이런 점이 중요하다. 나도 당신한테 어울릴만큼 아름답잖아? 이러면 재미가 없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다. '내 품 가운데 물약 향주머니'는 여인들이 향내 나는 물약을 가슴에 달고 다닌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단다.

17. 15-16절은 서로가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다 함께 노래한다(166-17). 개정개역 번역으로는 남자말인지, 여자말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 어느 말을 '멋 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16절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번역자들이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탓일 것이다.

18. 어여쁘고 어여쁜 여인은 눈이 비둘기 같단다(15).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나 순결을 상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대의 우리 기준일테고... 2:14절과 4:9절에서 비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고고함, 높은 절개(2:14), 치명적인 매력(4:9): 아마도 매력적으로 화장한 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자기 눈을 그린 것이나(왕하 9:30), 애굽트의 호루스 부조에는 이런 눈이 등장하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다. 참고로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요나라 한다.

19.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침상에 함께 앉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무슨 일이 있을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상상에 맡기고 그 대신 무엇을 노래하는가?

(아름다운) 분위기: 침상은 푸른 초장, 혹은 푸른 숲과 같고 집은 최상의 재료로 지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궁궐을 연상케 한다.

20. 이 여인은 1장에서 어떤 신분으로 나타나는가?

왕의 여인(4), 포도원지기(6), 목동(8): 이렇게 다양한 신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아가 2 장

1. 장절을 다시 가른다면 1절은 1장에 붙이고 2장은 3:5절까지 연결되는 것이 좋겠다. 솔라미 여인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란다. 솔로몬의 이 평가는 솔라미 여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어떻게 다른가?

거대한 사론 들판에는 수선화가 무리지어 핀다. 그 중의 한 송이는 별 것 아니다. 그냥 야생화일 뿐이다. 골짜기(이스라엘의 평원이나 들판은 골짜기에 있다)의 백합화(혹은 나리 꽃)도 남의 눈에 잘 띄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주변의 가시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바람에 일렁이면 가시에 찢려 향기를 토한다. 서로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관계는 바람직하지만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상태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별 것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2. 남자의 고백은 짧지만 강렬하다. 사실은 긴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무엇을 칭찬하는가?

여자의 고귀함, 강인함: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주변의 가시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바람에 일렁이면 가시에 찢려 향기를 토한다. 교회는 이런 면이 있어야 한다(계 2:13).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3. 다시 여인의 고백이 시작된다. 어디까지인가?

일단, 9절까지(14절까지일 수도): 남자의 한 마디에 여인의 고백이 너무 길지 않은가? 연애 시절에는 이런 수다(?)스런 여인이 좋던데? 그 중에서 4-7절은 들어야 할 대상이 예루살렘의 딸들(합창단)이다. 10-14절은 애매하다. 남자의 노래를 여인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자의 노래라고 해야 하나, 남자의 노래라고 해야 하나?

4. 자신은 평범하고 별 것 아닐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내 위의 깃발: 그들이 나를 시원케 하고 열매는 달고 깃발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중동지역의 뜨거운 태양이 작렬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들이 얼마나 시원하며, 그 열매는 얼마나 달까? 여호와 빛시,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면 승리는 말할 것도 없다. 누구의 깃발 아래 있다는 것은 그 분의 모든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뜻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런 식이다, '당신 주변의 모든 여자들이 가시나무라면 그대는 백합화입니다' 했더니 '당신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수풀이라면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잘 냈다!

5. 사론의 수선화는 수 없이 많이 핀 꽃 중의 하나일 뿐이다. 반면에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어떤가?

신분상으로 아주 고귀하다는 뜻이다: 나무는 종종 나라나 왕에 대한 은유로 쓰인다. 수풀 가운데 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런 나무 같은 남자가 수많은 수선화 중에 왜 하나의 수선화에 주목했을까? 은혜다! 이유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비유다. 성도는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달고 단 열매의 맛을 본다.

6. 4절의 잔칫집은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이란 뜻이다.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데이트를 즐기는 셈이다. 그 분의 사랑이 내 위에서 깃발처럼 나부낀다. 그러면 신이 날까, 피곤할까?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힘 드는 일인지 모른다. 사랑하므로 병이 났단다(5)

7. 사랑하므로 병이 들자 남자가 자신의 왼팔을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는다. 어떤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가?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7). 4-5절이나 6절도 육체적인 관계를 은근히 암시하는 듯하지만 결정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7절이다. '흔들다' '깨우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말)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8.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조용히 하란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란다. 그런데 노루와 들사슴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겹이 많은 짐승이다. 조금만 놀라도 튀어 달아날 듯하니 조용히 하라는 것: 본래 겹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마음이 너무 너무 예민해진다. 아이가 잠이 깰까 초인종 누르지 마라는 셈이다.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촌에 물건 사라고 마이크로 떠들면? '아가는 잠을 끈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실려어 ...' 이런 동요를 연상케 한다. 길보기에는 그런데 추가로,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말(비즈바웃 오 브야일롯 핫사데이 '한군의 여호와와 엘 샤다이로'(브즈바웃 오 브엘 샤다이)와 발음이 아주 비슷하다(아가서 이야기, 김구원 p145). 소위 언어유희를 통해서 여인의 순결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셈이다.

9. 아무도 소리 내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했는데(7) 왜 깨어났는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잘 만큼 잤거나 실컷 잤겠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결정적이었던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이유가 있어도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탓이다.

10. 들리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누가 내려다보고 있는가?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망울: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망울 속에서 마치 노루나 어린 사슴이 먼 산을 넘어 넘어 달려와 창으로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사랑하면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이렇게 시인이 된다.

11.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먹는 것(5), 아픈 것(5), 자는 자세(6), 예민한 것(7), 깨는 것(7), 보는 것(9)까지!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을 가리켜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한다(오래 된 팝송의 제목).

12. 원기를 회복한 사랑하는 자에게 봄이 왔으니 함께 가잔다(원문은 '나오라'는 명령형이다). 이 부분은 여인의 회상이다. 남자의 노래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106-14절: 남자의 노래다, 일명 왕의 초대다. 여인이 회상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가 인용한 남자의 말이다.

13.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함께 가잔다. 겨울이나 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시련: 겨울은 거의 모든 동식물들이 활동을 멈추거나 줄이고 움츠러드는 계절이다. 그 계절에 내리는 겨울비 역시 농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을씨년스러울 뿐이다.

14. 연애편지를 잘 쓰려면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 여인이 회상하는 남자의 노래는 어느 부분이 시각, 청각, 후각을 자극하는가?

시각: 11-12a, 13a, 14a, **청각:** 12b, 14b, **후각:** 13b,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 그림을 그리는 셈이다.

15. 우리나라에서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개나리, 진달래, 제비 등이 있다. 본문에는 무엇이 있는가?

꽃, 노래, 비둘기(옛비둘기)의 소리, 무화과나무의 열매, 포도나무 꽃: 무화과나무의 꽃열매는 초봄에 맺히는 것이다. 이게 익어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16. 사랑하는 사람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순결, 정숙, 절개 그리고 아름다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에게는 다가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노출되지 않은 규중처녀와 같다.

17.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 곳에 비둘기처럼 가만히 있다면 아무도 그녀를 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봄이 왔으니 나오라는 남자의 부름에 여자가 바깥으로 나오니 위협에 노출된 것이다. 꽃이 핀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사랑의 방해꾼을 의미한다: 포도주의 집에서 교제하고 봄이 오는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들에게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다.

18.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16a) 이와 흡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나 됨: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요 10:38, 14:10-11),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요 14:20, 17:21, 23).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결한 소망이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하나 됨을 소망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렘 7:23, 11:4, 겔 34:30)는 말씀이 있다. 이것이 고대의 성혼선언문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결혼을 약속하는 선언인 셈이다.

19. 16절 후반부의 '양 때를'이란 말이 어떤 성경에서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원문에는 그 글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합화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과, 히브리인들은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6절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내용의 반복일 수도 있다. 그러면 16절 후반부는 무슨 내용이 되는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백합화 가운데서 먹는구나', 혹은 '백합화를 먹는구나'로 번역할 수 있다. 성혼선언 다음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전반부는 영혼의 결합이라면 후반부는 육체의 연합을 노래하는 것이다. 결혼이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 우리말은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6-17절이 그렇다(굳이 '그에게' '그가'라는 말이 남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말로는 남자의 말일 수도 있고, 여자의 말일 수도 있다. 남성, 여성을 엄격히 구분하는 히브리말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남성이고, 양때를 먹이는 자도 남성이다. 이 남자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거함(혹은 하나 됨): 베데르 산(8:14에는 향기로운 산으로 번역)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돌아오라는 것이다. 베데르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은유적으로 여인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베데르를 향품의 일종이나 '쫄개지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해도 그렇다.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이 날이 저물면 보금자리를 찾듯이 사랑하는 여인의 품으로 돌아와 떠나지 않기를 노래하는 셈이다.

아가 3 장

1.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만 말은 그 뒤의 행위가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뭐지?
꿈이겠지: 원문상 밤은 복수형이다. 한 번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밤마다 그렇다는 말이다. 정말 사랑하는 임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나를 사로잡지 않을 때가 없는 법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혹시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그 불안이 이런 형태의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꿈 속에서도 사랑을 나눠야지 왜 사라지고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걱정거리가 생기기 때문: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없던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다. 마치 거지는 아무런 근심이 없으나 재물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랑도 단맛, 쓴 맛이 함께 온다.
3.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었다. 원문상으로는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했다는 의미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전자가 우연히 마주친 느낌이 든다면 후자는 여인이 요란스럽게 해매고 다녔다는 뜻이다.
4. 어렵게 찾은 사랑하는 이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어머니의 방으로(4): 여자들만 거하는 곳으로 결혼준비를 하는 곳이며 신부가 있는 곳이며 신방이 차려지는 곳이다(창 24:67).
5. 연인들은 때때로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 사랑하는 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는 것만도 행복하다. 깨우지 말고 지켜주고 싶다. 그런데 왜 노루와 사슴을 두고 부탁하지?
 노루와 사슴은 잘 뛰고, 잘 놀라는 동물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렇게 방정을 떨어서 사랑하는 자를 깨우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고, 사랑하는 자가 노루나 사슴이 놀라서 뛰듯이 깨어날까 염려스러운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초인종 소리나 방문판매원의 마이크 소리에 아기가 잠이 깰까 노심초사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예민해진다. (2장의 8편을 참고할 것)
6. 3장은 장 구분이 잘못되었다. 1-5절은 2장에 붙이고, 6-11절은 4장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6-11절은 무슨 내용일까?
혼인 행렬, 혹은 혼인: 7절의 가마(침대와 같은 가마로 9절의 타고 이동하는 가마와 다르다)는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한 것으로 멀리서 왔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이 행렬은 신부를 데려오는 행렬이고, 11절은 혼인날을 묘사하는 것이다. 1:1-3:5까지는 교제, 3:6-5:1은 결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7.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신랑이 가마를 대동하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모습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6절은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
합창단(예루살렘의 딸들의 역할):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호위하며 왕궁으로 모셔오는 행렬에 대한 노래다. 그래서 6절의 끝 부분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표현은 '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사람에게 대한 의문이 아니라 행렬이나 가마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이다.
8. 결혼을 위한 가마 행렬이 얼마나 성대한가?
 행렬이 일으키는 먼지가 연기 기둥 같았다. 호위병이 60명이었다는 것도 가능한 하겠지만... 압살롬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전배가 50명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행렬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정답은 연기 기둥이 좋겠다.
9. 칼을 잡았다는 말인가, 칼을 찌다는 말인가(8)?
 '칼을 잡았다'는 표현은 '칼에 능숙하다'고 번역되어야 한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밤에 있을 위험을 대비하여'라는 뜻이다.
10. 레바논 나무에 은과 금으로 만든 솔로몬의 가마를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으로 꾸몄다(10). 예루살렘의 딸들이 솔로몬을 많이 사랑했나보다.
달이 있는 집의 차는 장식품들이 오밀조밀할 때가 많다: 호위는 남자들이 하더라도 가마를 예쁘게 만드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법이다.
11. 결혼행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거친 돌을 지나야 하고(6)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8): 사나운 짐승들이나 도적떼들이 들끓는 먼 길을 지나와야 한다.
12. 6-10절을 원근에 따라 나누어 보자.
 6절은 원경이다. 7-8절은 가까이서 바라본 모습이고 9-10절은 아주 가깝게 들여다 본 모습이다.
13. 아가서의 신랑이 솔로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부분도 여기 뿐이다. 실제로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11)은 무엇이란 말인가?
신랑을 솔로몬에 비유한 것: 아가서의 많은 부분이 시적 은유인 점을 감안하면 신랑을 솔로몬으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가마도 솔로몬 표 가마라고 할 수도 있다.
14. 왕관을 왜 어머니가 씌우지?
 혼인날에는 신랑의 관을 어머니가 씌워주는 풍습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대관식에서 씌우는 왕관이 아니다.

아가 4 장

1.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글(1-5)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불가: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말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키가 얼마인지 피부 색이나 생김새가 어떠한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키가 얼마며 가슴, 허리, 힙 사이즈부터 말하는 오늘날 우리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전체적인 인상(1a), 부위별 묘사(16-5), 간절한 소망(6-8)의 순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예쁘다. 눈, 머리털, 이, 입술, 뺨, 목, 유방... 최종 결론은 뭔가?

흥이 없다(?) 정말 그럴까? 발일을 해서 검게 닳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오빠들에게 꾸중도 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예루살렘 여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객관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신랑의 눈에는 완벽하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3.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머리털이 누운 염소 때 같다고 할까?

색깔(검은 색)을 말하는 것이리라. 염소 때가 누워있는 걸 봐야 말이지? 염소의 특징은 비탈진 곳이라도 잘 뛰어다니는 것이다. 누운 염소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깨 너머로 할랑거리는 머리칼이라면 길르앗 산 기슭에 뛰노는 염소 때 같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텐데? '누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다.

4. 까만 피부에 하얀 이빨을 어떻게 묘사 하는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파인(일) 암양(가장 희다)과 길르앗 산의 (검은) 염소 때: 묘한 대조를 이룬다.

5. 이빨 묘사가 복잡하다. 이빨이 희고 가지런하다는 것을 묘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비유가 무엇인가?

목욕장에서 나오는 암양이 때의 털이 가장 희단다)과 상태: 쌍둥이처럼 이빨의 모양이 똑 같다는 의미다. 새끼 없다는 말도 이빨의 빠진 곳이나 틈새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6. 묘사가 제일 성의 없는 부분은 어디인가?

입: 그냥 어여쁘다로 끝이다! 특별한 은유가 없다. 입을 이렇게 홀대하다니? 사실은 언어유희적 기교를 부리고 있다. '네 입(미드바르)은 어여쁘다(나베)'는 말이 '네 광야(미드바르)는 오아시스다(나베)'는 말과 발음이 아주 흡사하다. 그러면 '네 입술은 광야의 오아시스' 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 혹은 '완벽한 그대에게 혹 광야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조차도 실은 오아시스란다' 라는 느낌을 담고 있는 셈이다.

7. 3절의 '석류 한 쪽'은 '벌어진 석류'를 의미한다. '분홍색 껍질 사이로 보이는 빨간 석류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너울 사이로 보이는 뺨: 고대인들은 껍질 질긴 석류를 잘라먹지 않고 꼭꼭 눌러 빼먹었다.

8. 목은 다윗의 망대 같단다. 그런데 방패가 천 개나 달린 망대란다. 목에 무엇이 천 개나 달려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장신구: 수많은 구슬이 둥글게 엮여져서 방패모양을 이룬 장신구일 것이다(1:10 참고). 그러니까 첫날밤 신부는 목에 장신구만 두른 전라의 모습이다. '무기를 두려고 견축한'이라는 말은 '마름줄로(우아하게, 열 지어) 견축한'으로 번역해야 한단다. 무기를 보관하는 망대라면 방패가 보일 리가 없지 않은가?

9. 유방을 노래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야하다. 성희롱 아냐?

부부사이라서 괜찮다, 더구나 신혼 첫날 밤에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니: 유교문화권에서는 봐도 못 본 척, 관심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서 조금 어색하게 들린다.

10. 몰약 산과 유향 산(6)이 어디 있을까?

그런 산은 없다. 솔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신부의 관능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 몰약산과 유향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명하다. 아름다운 여인을 온갖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구름(작은 산)에 비유한 것이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던 여인의 요청(2:17)에 대한 답이다.

11. 레바논, 아mana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즉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란다. 여기에 언급된 곳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의 거처다. 솔람미 여인은 왜 이런 곳에 올라가 있나?

솔람미 여인을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고결하고 신성한 존재(2:14)로 느끼기 때문이다: 레바논 산, 아mana 산, 스닐 산과 헤르몬 꼭대기는 해발 2,500미터가 넘는 고산으로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다. 심지어 표범과 사자는 전쟁의 여신의 상징으로 잘 쓰였다. 말하자면 솔람미 여인을 여신처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12. 솔람미 여인이 정말 그렇게 예뻐했을까? 외모가 그렇게 예뻐서 마음이 뻗긴 걸까, 마음이 빼앗기니까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걸까?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솔람미 여인을 쳐다보는 순간 그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9) 솔람미 여인 스스로도 자신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1:5) 참고로, '신부'라는 말은 첫날밤을 묘사하는 4:1-5:1에만 나타난다. 신랑은 '신부야, 나의 누이야'라고 부른다. 원문상으로는 '내 신부가 아니라 그냥 '신부'다. 신부를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감과 연대감을 나타

내는 애칭이다.

13. 여인의 사랑에는 포도주, 향품, 꿀, 젖, 향기가 진동한다. 남자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포도주, 향기름(1:2-3): 남자를 향한 여인의 찬양에 대한 남자의 응답송인 셈이다.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를 향한 내용이 더 풍부할 수밖에 없다. 아마 진도(?)를 더 많이 나가서 그럴지도!

14. 신부의 입술에 떨어지는 꿀 방울이나 혀 밑에 있는 꿀과 젖이 무엇을 의미할까(2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입맞춤과 사랑의 밀어: 입술은 관능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묘한 기관이다. 입술(또는 입)이 성적인 기관인 동시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 한 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려놓기도 한다.

15.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외부인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부의 순결함을 의미한다. 부부의 사랑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으며 독점적이며(잠 5:15) 의무적이다(고전 7:3-4).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무에게나 개방된 것이 아니다. 부부가 영육간에 순결을 지켜나갈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13-14)은 합부로 개방된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16. 잠근 동산에는 무슨 열매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온전한 사랑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가 있어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잠근 동산에는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도 바로 그런 것이다.

17. 고요한 동산이 낫지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야 하나?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북풍은 찬 바람이고 남풍은 더운 바람이다. 이런 바람이 교대로 불어줘야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이다. 찬 바람이 차서 싫고, 더운 바람은 더워서 싫다? 그러면 열매를 제대로 맺기 어렵다.

18. 16절을 조금 분명하게 고친다면 '북풍아, 남풍아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의 열매를 먹게하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동산이며 누구의 열매인가?

그녀의 동산인 동시에 그의 동산이며 그녀의 열매인 동시에 그의 열매: 동산이나 동산의 열매가 신부의 몸을 은유하는 것이기에 첫날밤의 신부의 몸은 신부의 것이면서 동시에 신랑의 것이다. 나는 그의 것이라는 고백(2:16)과 다를 아니다.

19. 4장은 온통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일색이다. 그 다음 순서는 뭘까?

합방: 신부가 신랑을 초청하여(16) 남편이 정원에 들어가 먹고 마신다(5:1).

[5:1]

20. 5:1절은 아무래도 내용을 둘로 나누어야 할 모양이다. 앞 부분을 4장의 결론으로 삼는다면 무슨 내용일까?

첫날밤을 지낸 느낌: 4장에서 신부의 몸을 찬양(4:1-5, 12-15)하고 신부와 한 몸이 되고 싶어했는데(4:6-8) 드디어 한 몸이 된 것이다. 뒷 부분은 다음날의 잔치를 가리키는데 이런 혼인 잔치는 언약의 확증이라는 의미와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21. 결혼한 것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말로 어색해서 몇 개를 생략했지만 그가 즐긴 모든 것에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빠짐없이 붙어 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이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말이다. 원래는 나의 것이 아니었던 것도 이제는 나의 것이다. 신부의 몸도 신부의 것이 아니라 신랑의 것이다(고전 7:4).

아가 5 장

< 1절은 4장 마지막에 >

1.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 사랑을 키우고, 청혼하고, 결혼식과 첫날밤을 치렀다(1:1-5:1). 그런데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2절에서 문제가 생긴 흔적을 찾아보자.

신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신랑은 바깥에서 돌아다녔다: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는 것은 아주 큰 고민 가운데 잠을 청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신부는 자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깨는 것도 아닌 상태였다는 말이다. 반면에 신랑은 머리에 밝이슬이 가득하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동안 밖에서 해매고 다녔다는 말이다.

2.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 사랑의 밀어를 나누던(4:1-5:1a) 신부에게도 위기의 때가 닥친 것이다(5:2-7). 남자가 밤길에서 돌아 와서 문을 두드린다. 신부가 뭘 잘못했는가?

빨리 맞아주어야지 꾸물했다(3). 아무리 사랑해도 불평할 일은 생긴다. 함께 지내다보면 남편의 매력과 소중함도 쉽게 잊을 수가 있다. 그러면 툭툭거리면서도(3) 원하는 바(4)를 들어주는 준다(5-6). 이들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남자가 사라져버렸다. 남자들도 아주 사소한 일에 잘 빠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3. 문을 열려고 애쓰는 신랑의 모습에서 마음이 달라진 모양이다. 그래서 문을 여는 신부의 손에서 왜 물약이 떨어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 귀찮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남편과 잠자리를 기대하는 신부는 물약을 몸에 바른단다.

4. 옷을 입고 문을 열어주려고 나오는 일을 귀찮게 여기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아마도 미친 사람처럼 성안을 뛰어 다닌 모양이다. 조금 귀찮다고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몇 십배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6절의 ‘말할 때에’는 ‘떠났을 때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

5. 신랑을 찾아 해매는 여인을 순찰하는 자들이 왜 쳐서 상하게 하였을까?

한 밤중에 신랑을 찾아 해매다가 야간통행 규칙을 어겼거나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순응하지 않았거나 실성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6. 문 열어주려고 일어나기가 귀찮아서 꾸물대더니(3-4) 신랑이 사라지자 그 사이에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8)?

좀 꾸물거리긴 했어도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일이 큰 아픔이 되는 수가 종종 있다. 귀찮거나 게으름을 피울 수는 있지만 그 작은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아픔은 참으로 크다. 사랑하는 만큼 아픔도 크고 반응도 예민하다.

7. ‘네 애인이 다른 사람의 애인보다 나은 게 뭐냐?’는 질문은 솔람미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 받는 사람이 자기 애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남이 알지 못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것이고, 그 얹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솔람미 여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애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찬미가를 부른다(10-16).

8.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10-16)는 연애시절에나 하는 것 아닌가?

신혼의 시련을 겪고는 더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시련은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9. 남편에 대해서 잠시 무감각하던 신부가 남편의 아름다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남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보인다(10-16). 그러니까 한 번씩 사라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작전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하긴 사랑도 기교라고 말한다. 밀당을 잘 해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 사랑이 여물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기교나 작전을 펼 수 없다. 조금 덜 사랑하거나, 이기적인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다.

10. 희고도 붉은데 왜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지? 이 표현이 신체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될까.

‘눈부신 외모에 붉은 피부’(삼상 16:12)라는 뜻이다. 10절은 외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으로 개략적인 느낌이다. 9-15절은 구체적인 부위에 대한 느낌이고 16절은 이 아름다운 신랑에 대한 찬양이다.

11. 솔람미 여인이 사랑하던 사람은 백인에 검은 머리털, 황금머리, 하얀 눈... 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이 틀렸는가(10-12)?

전부 다 틀렸다: 검은 머리털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는 근본 의도는 모양새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탁월함(건강, 힘, 위업, 젊음, 남성다움, 귀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검은 머리칼은 생동감과 젊음을 의미한다(호 7:9 참조).

12. ‘네 신랑이 무엇이 그리 예쁘다고?’ 그랬더니 ‘머리는 순금, 손은 황금,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대리석) 기둥이다. 왜?’ 한다. 빠진 게 뭐지? 요즈음 아이들 표현은 빌리면 초콜릿 복근이나 식스팩이 중요한데?

몸통: 14절의 ‘몸’은 ‘배’를 의미한다(단 2:32) 남자의 복부가 상아명판처럼 단련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아로생긴 상아’나 ‘청옥을 입힌’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13. 입에 대한 묘사가 왜 제일 나중에(16) 나오지?

입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남자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다.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묘사 이후에 사랑에 대한 찬양이 뒤따르는 것이다. (4장에서든 7장에서든)=p255

14. 16절 후반부는 앞의 어느 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9절: ‘네 애인이 다른 사람의 애인보다 나은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의 결론이다.

< 6:1 >

15. 9절에서 조소에 가까운 질문을 던진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의 답을 들은 반응은 어떠한가?

함께 찾으러 가잔다(6:1). 더 이상 놀리는 분위기가 아니다. 술람미 여인의 신랑에 대한 노래를 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신랑을 찾으러 나선다(1).

아가 6 장

- 문 앞에서 돌아섰던(5:6) 남편이 이제 다시 '자기 동산'으로 돌아왔다. 이제 무엇을 하지?
먹는다: 향기로운 꽃밭에서 먹고 백합화를 꺾는다. '양 때를'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다(2:16절도 동일 함). 5:1과 유사한 내용이다. 즉, 첫날 밤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 3절은 청혼고백인 2:16절과 흡사하다. 비교해 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자.
누가 누구의 것인지 순서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가 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의 것'이 되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 중심에서 그 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다시 찾은 첫사랑(6:4-7:14)]
- 또 몸에 대한 찬양이다(4-7). 4:1-5, 5:10-15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남녀관계에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셈인가?
칭찬: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 마음, 내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그것은 아주 특별한 남자들의 생각이고 여자들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 더 중요하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잘 기억하는 남자는 정말 복되다!
- 4-7절은 누구의 몸에 대한 찬양인가?
신부(솔람미 여인): '내 사랑'이란 호칭은 '나의 여자친구'라는 의미다. 더구나 솔람미 여인을 찬양하느라고 4:1-5절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 이 찬양은 7:14절까지 이어진다.
- 예루살렘(=평양의 터전) 같이 곱다(시 50:2)는 말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디르사(=기쁨)는 무슨 도시인가?
북 왕국의 첫 수도: 남 유다의 수도와 북 이스라엘의 수도를 다 품은 셈이다. 여자를 도시에 비유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서울이라면 동경의 대상이던 그 느낌을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거기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간 사람들의 뇌리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았다.
- 고우면 곱지(4a)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4b)은 무슨 말인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이 있다: 오빠들, 여인들, 파수꾼들이 조롱하거나 가볍게 여겼지만 신랑은 신부를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이 있다고 말한다. 여신의 포스가 느껴진다는 말이다.
-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더러 보지 말라고?
신부의 눈빛은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기 때문(4:9): 무섭다고 말하는듯 하지만 실제로 무서운 것이 아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신부의 강력한 사랑의 눈빛을 묘사하는 말이다. 그런 말을 듣고 눈을 돌리면 큰 일 난다. 실제로 돌리라는 말이 아니다. 머리털, 이빨, 뺨에 대한 묘사(5:6-7)는 4:1-3절과 마찬가지로이다.
- 솔람미 여인이 정말 육십 명의 왕비와 팔십 명의 후궁보다 더 예쁘고 완전했을까?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의 선택이 중요하다: 신랑이 그녀를 선택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그의 어머니가 '귀중하게 여기는'이란 표현도 70인역은 '선택된'으로 번역했다. 오빠가 있었는데 외팔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택된 딸'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고대에는 선택된 아들이나 딸이 모든 권리를 갖는다. 생물학적 장남이나 아들보다 아버지의 선택이 더 중요했단다.
- 왕비와 후궁들이 솔람미 여인을 아침 빛(새벽 별), 달, 해, 깃발을 세운 군대(=밝은 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와 같다고 극찬을 한다(10). 왜 이리까지?
왕이 그렇다고 하니! 왕비나 후궁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 왕의 말이 곧 자기들의 기준이어야 한다.
- 4장에서 신랑의 칭찬에 신부가 응답한(신랑을 초청한) 적이 있다. 여기서는 남편의 칭찬에 여인이 어떻게 응답하는가(11-12)?
자신이 직접 호도 동산으로 갔다가 귀한 수레를 타게 되었다: 결혼 후 멀어진 관계를 잘 극복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다. 이 부분의 원문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 4장의 구조와 비슷한 문맥(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부부관계로 이어진)을 따르면 이 부분(11-12)은 분명히 부부관계를 의미하는데 아내가 더 주도적이었던 의미가 된다.
- 13a는 합창단, 13b는 남자의 노래다. 이것은 11-12절에 묘사된 신부의 말에 대한 반응이다.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돌이키라)는 의미나 별반 다르지 않다. 아마 신부가 너무 열정적으로 나선 것(조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인 셈이다.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하는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마라'고 외치는 셈(13b):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군영의 댄서처럼 여기느냐?'는 것이다. 두 번의 '솔람미 여인'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앞의 솔람미 여인(*Shulammitte*)은 한국인 여자라는 말처럼 중복이다. 솔람 여인이라고 해야 한다. 두 번째 것은 *the Shulammitte*로 앞에 관사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완벽한 여자(5:2, 6:9 나의 온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하나임은 지명이라기보다는 '두 진영'을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본다.

아가 7 장

[아내의 몸에 대한 남편의 찬양(7:1-6)]

1. 앞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도발(5:9)에 대해서 남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했던 적이 있다(5:10-16). 여기서도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은 아내를 군영에서 춤추는 자로 조롱한 합창단(6:13a)에 대한 대답이다. 한 마디로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다?

귀한 여자다(1) 상류층 귀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외모를 묘사할 때는 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발에 대한 묘사 때문이다. 발의 아름다움을 먼저 언급한 것도 조롱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다. 군영에서 춤추는 천박한 여인의 발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발을 뜻하는 단어는 발뿐만 아니라 스텝이나, 발걸음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다.

2. 넓적다리(허벅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허벅지의 곡선은 성적인 매력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허벅지에 대한 매력을 천하게 여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숙련공의 작품에 비유한 점: 숙련공이라고 번역된 말은 은근히 창조주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일 수 있다(잠 8:30 참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문가의 작품을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하거나 제멋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귀한 자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3.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잔은 어떤 느낌일까?

아름다움과 맛, 멋, 설렘이 혼합된 느낌 아닐까? 배꼽은 고대 근동에서 여성미의 상징이었다. 배꼽이 없는 밸리댄스를 상상해 보라. 섞은 포도주란 포도주에 물이나 향품을 섞은 것을 말한다.

4. 2절의 '허리는 '복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5:14절에서 남자의 배는 상아 명판으로 비유했는데 여자의 복부는 밀단이란단. 밀단의 특징은 뭘까?

매끄러운 곡선과 황갈색의 색깔: 남자의 배가 근육질이었다면 여자의 배는 매끄럽고 부드럽다.

5. 목은 상아 망대란다. 상아로 만든 망대라는 말일까, 상아로 치장한 망대라는 말일까? 여자의 목을 묘사한 1:10, 4:4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상아로 장식된 망대: 상아궁(왕상 22:39)은 상아로 장식된 궁이라는 의미다. 더구나 여자의 목을 묘사할 때마다 목걸이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다(1:10, 4:4).

6. 눈은 연못 같다는 것은 눈의 어떤 특징을 묘사한 걸까?

반짝임: 헤스본은 요단 강 동쪽 약 25km 지점의 고원 지대에 있는 모압의 성읍이다. 고지대라 전망이 좋고 교통의 요충지였다. 왕의 대로를 따라 광야지대를 통과해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헤스본의 연못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7. 신체를 묘사하는 순서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순서가 바뀐 게 무엇인가?

눈(4) 목, 눈, 코의 순서다. 목과 코는 망대에 비유했다. 그러면 눈은 두 개의 망대 사이에 있는 연못이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나 보다.

8. 코는 다메섹을 향한(내려다 보는) 레바논 망대같단다. 잘 났다는 뜻일까, 우뚝 솟았다는 뜻일까?

우뚝 솟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면서도 다메섹 군대의 입장에서 두려움을 주는 대상인 것을 은연 중에 내비친다: 적군이 쳐들어오려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망대다. 군영에서 춤추는 여자처럼 가볍게 보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9. 머리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이 여인이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세 가지를 지적해 보자.

갈멜산, 자주 빛, 머리카락에 매인 왕: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불쑥 솟은 갈멜산의 위용은 웅장하고 장엄한 것이다. 실제로 갈멜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평야지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주 빛 물감은 바다 고동에서는 귀한 염료로 만든 것이어서 왕궁에서나 사용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왕을 사로잡은 머리카락이니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분이냐는 것이다. 이런 여자를 군영에서 춤추는 여자로 여긴다?

10.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묘사한 바를 간략하게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즐거움(6)

11. 위기를 잘 극복(6장)한 남편과 아내가 더 깊은 사랑을 노래한다(7장). 이 사랑의 노래도 첫날밤을 묘사하는 4장에서 남자가 신부의 몸을 찬양한 후(4:1-5) 신부와 한 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던 것(4:6-11)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1-6절이다. 그러면 여인과 하나되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종려나무(=대추야자)에 올라가서 그 가지(대추송이)를 잡는 것(7-8a): 대추야자나무는 수직으로 높이 자라고 줄기는 가시가 없고 매끄럽다. 꼭대기에 열매가 달린다. 열매를 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꿀에 절인 것만큼이나 달다. 여성의 몸이 주는 쾌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12. 유방을 종려나무 열매송이(대추야자)라고 하더니 금세 또 포도송이란다. 열매가 맛을 의미한다면 포도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크기? 유방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자랑스럽게 내밀고 다니

더라. 요에서는 사과냄새가 나고 입은 포도주란다. 사과는 사랑을 복돋아주는 것(2:5)이다.

13. 9절의 '내 사랑하는 자'는 원문상 남성이다. 그러면 남편의 노래를 아내가 가로챘다는 말이다. 남편이 '그대의 입은 최고의 포도주니라'는 말에 대한 대답을 아내가 뭐라고 한 것일까? 개역은 아무래도 오역같아 보인다.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자.

원문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이 더해진 탓에 번역도 제각각이다. '이 포도주가 사랑하는 자에게 부드럽게 넘어가 붉은 입술로 흘러내린다' 이런 번역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판국에 잡자는 자란 말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14.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면(10) 누가 누구를 사모해야 정상인가?

내가 그를! 혹은 서로가 서로를! 그런데 그가 나를 사모한다? 원문으로 보면 '그의 소원은 나에게 있다'(His desire is toward me)는 말인데 이것은 창 3:16에서 범죄한 하와에게 하신 말씀 '너의 소원은 남편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 소원(욕망)은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킨다(창 4:7절과 동일함). 그렇다면 이 고백은 여자에게 주어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더 이상 남자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분의 지배 아래 거하기를 소원한다.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훨씬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는 말이다. '우리가 함께 ~ 하자'라는 표현은 1인칭 복수 청유형으로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다. (2:10절의 '함께 가자'는 것은 명령형이다. '오라'고 한다는 의이다.) 그만큼 두 사람의 사이가 성숙된 것을 의미한다.

15. 7장의 구조는 4장의 구조와 흡사하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 되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은밀한 사랑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어디로 가는가?

포도원(12)으로: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는 것은 포도원으로 가는 과정일뿐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멀리 시골에 있는 셈이다. 포도원에서 포도 움이 돌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살펴보고 난 후에(6:11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몸이 되기 직전의 행위) 사랑을 주리라고 노래하는 것을 참고로 하자.

16. 합환채는 사랑의 묘약으로 통한다. 새 것과 묵은 것이란 표현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처럼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왜 이렇게 쌓아두었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뜻이다. 여자가 몸으로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다.

아가 8 장

1. 8장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아가서 전체의 요약이다. 그래서 어디선가 본듯한 표현들이 나타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면 좋겠다(1):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야곱이 사촌누이 라헬에게 입 맞추는 것(창 29:11)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2.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 집에 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앞에서(3:4) 본 적이 있는데?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의미다: 어머니의 집이란 결혼을 준비하는 장소, 첫날밤을 치루는 장소다. 1절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2절에서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갈망을 드러낸다.

3. 사랑하는 사람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안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부부가 침대에 부둥켜 앉고 누워있는 모습이다. 3-4절은 2:6-7절의 설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여인이 소망하는 노래(1-5)에 합창단이 코러스를 넣었다(5a).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가마를 타고 오는지 걸어서 오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3:6을 참고하면 가마에 타고서 서로 기대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4절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합창단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

결혼식 장면을 연상시킨다(3:6-11 참고). 이어지는 내용이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5.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자를 깨웠단다. 왜 하필이면 사과나무 아래서 깨우는지 다음 구절(2:5, 13, 7:8)을 참고로 하자?

사과가 관능적 의미를 띠고 있다: 여자의 상사병을 치료하는 데에 사과가 등장하고(2:5),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을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달콤한 열매를 즐기고 싶다고 한다(2:13).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아내의 체취를 사과향이라고 한다(7:8).

6. 여인이 남편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려고 고생한 그 곳: 이들의 육체관계가 은근히 후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치는 셈이다.

7. 아가서의 남녀관계가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육체적인 관계에서 남자가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다. 아가서에서는 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2, 5). 고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은 아니다.

8. 도장을 하필이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려고 할까? 도장을 마음에 넣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팔에도 도장을 넣을 곳이 없지 않은가?

나는 당신의 모든 생각(=마음)과 모든 일(=팔) 속에 머무르고 싶다: 요즈음 식으로 하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도장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는 뜻이다. 물론 잘 보관해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유다가 창녀에게 도장을 건넸다가 움짱달짝하지 못하는 그물에 걸린 고기 신세가 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9. 죽음이 강한 이유는 모든 생명체를 이기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 이 사랑을 아무도, 많은 물도 홍수도 막을 수 없다? 무슨 장애물이 있었기에 이럴까?

신분의 차이: 남자는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모하는 왕 같은 자이지만(1:4), 여자는 오빠들의 염려의 대상(1:6)이기도 하고 파수꾼들이 합부로 대하거나(5:7) 예루살렘 여인들이 시기할 정도로(6:13) 고귀한 사람은 아니었다.

10.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누가 빼앗을라치면 어떻게 되는가?

스올같이 잔인하게 짐어삼켜버릴 것이다: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극도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다는 것은 이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출 20:5)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 사랑은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빼앗을 자가 없다.

11. 아가서에서 이 여인의 아버지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결혼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오빠들이다. 이 오빠들의 걱정이 무엇인가?

아직은 어리다: 유방이 없다는 것은 결혼할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혼담이 올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결혼할 나이는 되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오빠들의 눈에는 아직 어리게 보인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고약한 오빠들이 아니라 동생을 염려하는 오빠들이다. 그러면 오빠들이 여동생에게 화를 낸 것(1:6)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12.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진 오빠들이 누이를 무엇이라고 가정하는가? 이에 대하여 누이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성벽 혹은 문(9) 반면에 누이는 성벽이라고(10) 대답한다. 그래서 성벽과 문은 대조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누이가 성벽이라면(절개를 잘 지켰다면)은 망대를 세워주겠지만 문이라면(절개를 지키

지 못하였다면) 백향목 판자로 봉해버릴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13. 염려하는 오빠들에게 자신을 성벽이라 하고, 유방은 망대같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 성벽이나 망대는 아무나 함부로 오를 수 없다. 즉 절개를 잘 지켰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화평(shalom: 넓은 의미로는 행복, 건강, 만족)을 가져오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대답하는 셈이다.

14. 본문에 보이는 두 종류의 포도원은 무엇인가?

솔로몬의 포도원(11)과 내게 속한 내 포도원(12): 은 천 세겔의 수확을 가져오는 포도원은 아주 좋은 포도원이다(사 7:23 참고). 그런데 솔로몬의 포도원에는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지키는 자'는 5장에서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파수꾼과 같은 단어다. 중요한 것은 내 포도원은 거기에 속한 포도원이 아니란 점이다. 바알하몬은 '우리들의 남편'이란 뜻이다. 포도원이 여인의 몸을 상징한다면(7:8-9 참조) 그리고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포함된 여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파수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여인이 솔로몬과 지키는 자에게 포도원 값을 내겠다는 것은 아마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포도원을 탐낸다면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7절 참조). 사랑은 제 3자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셈이다.

15. '동산에 거주하는 자'(원문에는 여성 단수)는 당연히 솔람미 여인이다. 예루살렘 처녀들이나 남편의 친구들이 이 여인을 정말 좋아했는가?

평범한 농부의 딸로 여겼다: 오빠들도 그랬고 파수꾼들도 그랬다. 단지 남자의 눈에만 완벽한 여자요, 존귀한 존재였다. 그랬던 그녀가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 친구들에게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13).

16. 14절의 '내 사랑하는 자'는 원문상 남성이다. 그러니 신랑의 말에 대한 답변이다. 아가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사랑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답했는가?

어서 오세요: 빨리 달리라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